



우리의 家章

靑松沈氏宗報

發行人：會長 沈宜洛
編輯人：文化理事 沈載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印刷：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非 賣 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七世祖 兵曹參議公(휘:湍)



▲참의공 묘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2011년 10월 6일 파주시 월릉면 공숙공 선영으로 천장(遷葬) 예정)



▲ 묘표석

七世祖는 蔭職으로 통정대부병조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를 역임하신 휘는 린(湍)인바 선덕계축(宣德癸丑) 世宗15年(1433)에 출생하시고 홍치경술(弘治庚戌) 成宗21年(1490)에 별세하시니 향년이 58세 이시다.

夫人은 慶州李氏인데 부친의 휘는 孝林이며 관직은 大護軍이고, 조부의 휘는 携(携)이니 漢城尹이시고, 증조의 휘는 誠中이시며, 외조는 관직이 奉教(奉敎)요, 관향(貫鄉)이 무송(茂松)이며, 성명은 윤자견(尹自堅)이시다.

부인의 기일(忌日)은 4월 17日이며 묘소는 양주군 외송산 시비곡(楊州郡 外松山柴北谷)에 계신바 兩位분 상하분(上下墳)으로 간좌(艮坐)이시며, 床石石人望柱石 香明臺가있고 분형(墳形)은 말갈기 형이다.

兵難後의 공의 묘소와 그 아들 찬성공(贊成公)묘를 失傳 했더니 부사 정휘(府使挺彙)씨가 송산유씨가(宋山柳氏家)에 장가를 들어 유씨가에서 동래유전어

(洞內流轉語)를 듣고 비로서 묘를 찾았으나 공묘의 갈석(碣石)은 없어지고 50보 근처에 崔氏의 暗葬묘가 있었으니 공묘의 碣石이 없어진 것은 최씨 소행인 듯 하며 묘를 찾을 때 소개인이 사실전부를 실토하지 않아 墓道의 石物도 없어지고 의적(懿蹟·事蹟)도 전하지 못하니 애통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後夫人은 李氏인데 청주망족(淸州望族·有名族)이신바 증조의 휘는 거이(居異)요, 관직은 영의정(英毅)이시고 조부의 휘는 伯臣(伯臣)이요, 관직은 울산첨절제사(蔚山僉節制使)이다. 효(孝·父) 휘는 길(佺)이며 종친부전첨사록사(宗親府典籤司錄事)이시며 비(母)는 南原 梁氏이신바 金海副府使 思貴의 따님이다.

후부인은 宣德乙卯(1435) 5월 16일에 출생하시고 兵曹參議 휘 린(湍)의 계실(繼室)이 되어 22년 간을 금슬 좋게 동거하시다가 弘治庚戌年에 참의공이 후부인 보다 먼저 서거하셨는데 이때 후부인께서 초상(初喪)을 치르시되 예를 다하시고 諸孫을 무애(撫愛)

하시기를 親所生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進士公 휘 간(幹)은 참의공의 장손으로서 강보에 쌓여 자라셨으며 甲子年에 휘 幹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별세하시니 후부인 李氏께서 슬픔이 지나쳐 피눈물이 나고 기절했다가 소생하였다.

나 宗元도 출생 3일만에 어머니가 별세하셨는데 그때도 후부인이 나를 불상히 여기시고 몸에 품고 기르셨으며 나의 아들 영(筵)도 또한 후부인의 양육(養恤)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문호를 회복하여 빛낼 것이라 하더니 일찍 文科에 급제하여 지금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으니 그 先見之明이 이와 같도다.

후부인은 천성이 정직하고 과감하여 행동이 예법을 따르시고 시집오셔서 선대제례(先代祭禮)를 지성으로 받들고 家道가 숙정(肅定)하니 척족(戚族)이 화목하며 경사(經史)에 능통하시었다. 또 書史도 해석할 수 있었으며 聖賢의 본받을 법과 자손을 위하는 규범 그리고 자인호례(慈仁孝禮)가 한결같이 성의에서 나왔기로 듣는 자가 모두 칭찬했다. 正德辛巳年(1521) 8월 초2일에 질환으로 별세하시니 향년이 87세요 무후하니 애통하도다.

참의공과 前夫人묘는 楊州松山里에 계시다 근방에 장례 할만한 묘지가 없어서 합장을 하지 못하고, 이 해 10월에 파주 회곡리(坡州 灰谷里) 간좌공향(艮坐坤向)의 시아버지 靑松府院君恭肅公묘 동쪽에 장례하였다.

嘉靖24年 乙巳年(1545)8月 日에 曾孫 通訓大夫 行 平丘道察訪(平丘道察訪) 沈宗元이 삼가 씀

2011年度 秋季時享日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始祖	文林郎公(휘:洪孚)	10.5	9.9	水	靑松郡 청송읍 덕리 보광산
	中臺墓所	10.5	9.9	水	靑松郡 청송읍 부곡리 중대산
二	閣門祗候公(휘:淵)	10.7	9.11	金	益山市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二	奉翊大夫公(휘:晟)	10.21	9.25	金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靑華府院君(휘:龍)	10.9	9.13	日	安城市 당왕동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10.9	9.13	日	安城市 도기동
三	判書公(휘:漣)	10.21	9.25	金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上護軍公(휘:卿)	10.21	9.25	金	"
四	靑城伯(휘:德符)	10.11	9.15	火	漣川郡 미산면 아미리
四	청성백 配位 淸州 宋氏	10.13	9.17	木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五	都摠制公(휘:仁鳳)	10.13	9.17	木	"
五	判事公(휘:義龜)	11.10	10.15	木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五	知成主事公(휘:繼年)	11.10	10.15	木	光州市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五	지성주사공 配位 崔氏	11.11	10.16	金	全南 장성군 황용면 외곡리
五	仁壽府尹公(휘:澄)	10.13	9.17	木	全北 원주군 화산면 운산리
五	安孝公(휘:溫)	9.12	8.15	秋夕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산의실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五	三韓國大夫 順興安氏	10.10	9.14	月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五	청원군(휘:涼)	11.3	10.8	木	坡州市 문산읍 사목리
五	현령공(휘:天柱)	10.30	9月末週	日	安東市 풍천면 인금리
五	돈제공(휘:天湜)	11.7	10.12近日	月	慶南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六	평산부사공(휘:灝)	10.28	10.2	金	原州 단계동 사천마을(설단)
六	좌랑공(휘:溝)	11.10	10.15	木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六	애암공(휘:涓)	11.19	10.17	土	光州 광산구 감적동 가정산
六	良惠公(휘:石雋)	10.16	9.20	日	龍仁市 포곡면 가실리
六	領中樞公(휘:澹)	10.27	10.1	木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六	恭肅公(휘:澹)	9.12	8.15	秋夕	坡州市 월농면 영태리
六	靖夷公(휘:決)	11.6	10월첫째	日	安城市 양성면 장서리
六	증참판공(휘:孝鼎)	10.31	10.5	月	靑松郡 파천면 용덕리(설단)
六	연일공(휘:自鼎)	11.13	10월둘째	日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時享 陽曆 10월 17일(월) (陰曆: 9월 21일) (每年 陰曆 9월 21일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묘소)

종보(宗報)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보고

대중회 의락회장께서 「종보운영활성화에 대한 협찬문」 종보 제90호(2011년 7월 30일 발행)로 전국 종인과 파종회, 지역종회의 적극적인 협찬을 간청한 이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일본지역종회 광섭(廣燮)회장께서도 일본내 종인들에게 종보구독을 독려하시면서 종보 발행시 50부씩 요청하여 현재 배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기로 문중의 소식과 종인들간의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중이시며 11월초 대중회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편집위원회」를 금년 11월에 개최예정인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월부터 시행코자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특히 파종회와 지역종회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금년도 종보 예산대비 성금실적과 회장단회의에 부의예정인 종보 편집위원회 규약(초안)을 제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문 화 부

① 2011년도 종보 소요경비 대비 성금실적 현황

예산	성금실적 (9월 22일 현재)	달성률	기 타
25,000,000원	9,380,000원	37%	2011년 7월부터 2도 색상에서 4도 색상(컬라)으로 발행

◇ 2011년(1. 1 ~9. 22) 파종회와 지역종회 종보성금 명단

공숙공종중	두암종회
法串宗中	선무공신종회
구미종회	진주종회
부산청송회	익산종회
김포하성종회	경남 고성종회
신천공파 춘천종회	마산종중
延江公파마산종회	정랑공종중
춘천 신천공파종회	내자시 관광공파
철원종회	

※상기 명단은 회계처리상 2011년도 회계년도분으로 입금기준으로 작성

② 2012년도 시행 청송심씨종보 편집위원회 규약(초안)

제1조 (명칭과 사무실)

본 위원회는 「청송심씨종보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청송심씨대중회 사무실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편집위원회는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위원들의 편집자문 및 참여를 통해 유익하고 수준 높은 종보 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

- ① 위원은 파종회와 지역종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중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회의 회장은 宗報 發行人(대중회 회장)이 되며, 간사는 종보편집인 대중회 문화이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무)

- ① 종보발행의 발전 방안제시
- ② 종보원고 작성 및 송고
- ③ 기타 종보 발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종보 발행인의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만료 시 차기 종보 발행인이 신규 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연 2회(상반기·후반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조 (의사결정)

의결은 다수결에 의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8조 (예우)

편집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원고료는 지불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종보발간)

- ① 발간경비는 청송심씨 종인과, 파종회, 지역종회의 성금으로 한다.
- ② 연6회 흡수 月末(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발간한다.
- ③ 종보는 청송심씨 종인에게 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구독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종보의 원고)

- ① 원고의 투고는 청송심씨 모든 종인이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손, 사위 등도 참여 할 수 있다.
- ② 원고의 내용은 선조의 업적 홍보 및 발굴, 명문가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호 사상 고취, 종인의 친목증대, 종인의 교양 함양, 종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투고를 할 수 있다.
- ③ 종보의 발간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 종교,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은 제외 한다.

제11조 (광고란 활용) 광고란 활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파종회나 지역종회의 추천을 받아 광고란을 이용하여 사업이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을 선전 할 수 있다.
- ② 이를 활용할 때에는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금은 종보 운영비로 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본 위원회의 규정개정이 필요시 종보 발행인이 편집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靑松沈氏大宗會 任員 選任 名單

顧問：魚澤 成澤 相琦 鍾燮 晶求 宜燮 載鴻 載榮 載完(9명)
 指導委員：宜斗(신임) 相明 相弼 達燮 大燮 宇永 大平 勳鍾 漢竣 龍俊 允宗(11명)
 名譽會長：斗燮(신임)
 會長：宜洛(신임)
 副會長：相和(상임) 庚周 相郁 相殷 贊求 完求 甲輔(7명)
 監事：載冕 春植 載烈(신임) (3명)
 執行部：總務理事 在根(신임) 財務·文化理事 載緒(신임) (2명)
 有司：靑松：能光 琬澤 咸悅：正秀(신임) 安城：光澤 漣川：良燮 淸州：成輔 (6명)

理事：

(서울) 宜杓 堯澤 勇鎮 相默 相學 相翰 相慶 相祚 暎求 泰燮 求亨 奉燮 載求 百燮 星求 光燮 正燮 洪燮 光燮 容圭 載萬 載洪 載金 殷植 三圭 元植 載澈 載德 愚夏 春輔 英輔 昌輔 勳輔 種福 賢輔 (35명)
 (釜山) 宜景 相均 載德 載榮 萬仁 (5명)
 (大邱) 湖澤 烜燮 護雄 賢錫 (4명)
 (大田) 宜哲 逸燮 玄根 揆燦 揆善 (5명)
 (仁川) 在安 相直 相圭 相振 駿求 德求 大植 佶燮 應茂 載善 應茂 江水 左輔 (13명)

(光州) 在均 相八 鍾德 觀燮 憲燮 駿燮 鎮植 石煥 愚慶 在益 (10명)
 (蔚山) 隆求 英求 應輔 守輔 (4명)
 (江原) 萬澤 相汶 相祐 相夏 相甲 相鴻 東燮 敏燮 仁燮 晞燮 載求 茂植 東出 正輔 愚弘(15명)
 (京畿) 永澤 龍澤 相龍 相億 相勳 相英 相弘 相贊 鍾赫 相烈 相再 鍾洪 相國 相華 相學 康燮 良燮 晟求 求亨 應夏 政燮 一用 洵燮 明燮 龍燮 仁求 胤燮 慶燮 德燮 炯燦 載烈 載萬 載滿 載勳 禹植 載玉 允輔 愚龍 光輔 元輔 善輔 聖輔 上銀 宗玉 泳淳 完輔 文錫 昌輔 明輔(49명)
 (忠北) 相昊 相鶴 中來 成來 興燮 鍾燮 載龍 載茂 載德 載榮 明彦 揆完 (12명)
 (忠南) 甲澤 允澤 仲根 仲燮 載善 載令 載重 泓植 永鍾 (9명)
 (全北) 相泳 相哲 相根 鍾默 鍾根 相貴 斗燮 仁求 載政 載學 哲植 安輔 秀永 秀一 尙道 (15명)
 (全南) 相錄 行燮 貞燮 正植 (4명)
 (慶北) 宜石 在叔 相國 相燾 相學 遠燮 載洪 載德 載玉 載浩 載根 容爽 花鮮 (13명)
 (慶南) 在圭 東燮 吉燮 柱燮 鎮奎 點輔 揆實(7명)
 (日本) 廣燮 (1명)

※대중회 총 임원 : 241명

2011년 9월 30일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대중회 신입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종인소개
2005년도 대한민국 인물 33인 선정
沈宜斗 (雅號 華鳳)



▲ 완주군 화산중학교 전경 (원안은 설립자 겸 교장 심의두)

◆ 학력

- '57.2 용문고 졸, '64 전북대 법학과 졸
- '86~'87 서울사대부설행정연수원 수료

◆ 이력

- '64 화산고등공민학교 설립·교장
- '69~'95 완주 화산중학교 설립자 겸 교장
- '70 전국새마을연수 초청강사
- '87 전북사학법인련 이사·부회장
- '88~'91 완주군교련 회장
- '91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대의원
- '90 전북사립설립자교장회 회장

- '95~'98 전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97~'98 전북도교육위원회 의장
- '98.10~'99.8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 '99.9 화산중학교 설립자겸 교장(이사장)
- '98.10 제2건국위원회 완주군 위원장 및 중앙위원
- 2000.6 제27회 교단문학신인상(시 부문)
- 2002.2 전북 국민홍보위원 회장
- 2002.10 청와대 원로정책 자문위원, 해외연수 및 시찰 9차례

◆ 저서

'장기 묘수풀이 지도자 교육'

◆ 논문

'한국 교육지표로서의 신의에 관한 일고', (서울대) '환경위생과 쓰레기 분리수거' 전국교장단 주제발표, '99.12.15 전북일보 가치관교육 - 한국 교육지표를 신의로 하자. 2000.1.25 전북일보 농촌학교 살리기 특별법 제정요구 -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발표 외 다수

◆ 상훈

제1회 경향사도상, 문교장관상, 전북대상, 국민훈장석류장, 교육감표창, 도시사표창, 남산 문화재단 교육상, 공익장(완주국민의 장), 전북도민상, 한국최고브랜드대상, '08대한민국혁신 그랑프리대상, 고객감동 그랑프리대상, 혁신경영 CEO 대상, '09 교과부 교과교실제 A타입 최우수상 15억원 지원, 2010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실제 A타입 운영학교 최우수상, 2010 교과부 연구 선도 시범학교 운영 선정 3년간, 2010 KBS 주최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초청 참가 외 다수

◆ 언론

2009년 美 CNN('전 세계에서 농촌학교를 살린 학교는 화산중학교뿐'이라고 소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몽골 등 전 세계에 방송돼 몽골 등지에서 견학을 오고 있고) 외 KBS, MBC,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 학교와 심의 두 교장선생님 개인의 업적이 수십 차례 소개됨.



함허정(涵虛亭) 현판
글을 쓴 분은 누구일까?

함허정은 조선 중기 문사(文士)인 심광형(沈光亨) 선생이 승경(勝景)을 좋아하여 중종(中宗38) 1543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함허정에 걸려 있는 현판을 보노라면 그 글씨에 매료되어 감탄사가 아니 나올 수 없다. 누군가 당대 명필 글씨임은 분명한데, 함허정(涵虛亭) 3 글자는 큰 글자로 쓰고 옆에 병자 4 월 일이라고 낙관되어 있

다. 그 낙관을 여러기법으로 판독해 보았지만 밝혀내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워 하던 차에 2011. 2. 20 전주문화원 동국전체연구소장 이용엽(李容燁)이 함허정을 내방하여 현판을 보고는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晩)의 필체라고 하고는 사진을 잡아서 KBS 진품명품 감정위원 김용복(金容福)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창암이 1816년(병자

46세때 쓴 글씨로 매우호방하면서 서예의 극치에 달한 글씨라 평가하였다.

우리 선조님의 얼이 담겨 있고 500여년을 지켜온 정자와 정자 얼굴인 현판 글씨를 명필 창암(조선 후기 3대 서예가 김정희, 조광진, 이삼만이 썼다는데 금지를 갖고 영구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함허정 서문을 지은 분은 : 수양최원(首陽崔瑗)이며 옥과 현감을 역임하는 동안 1842년에 지었으며 매년 봄에는 이 지역 선비들을 함허정으로 초청하여 향음례를 베풀었다 하여 당시 시문(詩文)으로 이름을 떨친분이다.

◎ 함허정 서문 글씨를 쓴 분은 : 자하신



▲ 함허정(涵虛亭) 현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0호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군촌)

위(紫霞申緯)인데 문과급제하여 서장관과 이조, 병조, 호조참판을 역임한 분으로 시서화(詩書畵) 3절이라 하였으며 특히 전(篆)서를 잘 쓴 분이다.

지방순회 뿌리교육

문중의 뿌리와 역사를 배우고 종인들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일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자 : 2011. 10. 29(토)
- ◎ 장소 : 부산진경찰서 7층 직무교육장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로 111번길 6)
- ◎ 참석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남녀
- ◎ 교육일정표

교육시간	교육내용	진행 및 강사
10:00~10:50	대중회 회장 인사, 대중회 소개 부산중회 회장 인사, 인터넷족보	심재근(대중회 총무이사)
11:00~11:50	충효사상(특강)	沈日鎭 전 해운대경찰서장(총경)
12:00~12:50	점 심	

13:00~13:50	현조사적	심재열(대중회 감사)
14:00~14:50	대중회 홈페이지	심재서(대중회문화이사)

* 교재와 중식은 무료

◎ 찾아가는 길

- 지하철 : 1, 2호선 서면역 하차 영광도서(9번출구) 방면 이용 5분 도보
- 버 스 : 각 방향에서 서면 롯데호텔 맞은편에서 하차 3분 도보
- 개인 자가용 : 경찰서 지하1층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34대 한정)
* 영광도서 앞 복개로로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30분 1,000원)
* 가능한 경찰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바람.

◇ 연락 처 ◇

- 청송심씨대중회 : 사무실(02-2267-7857), 문화이사 심재서
- 교육장 : 부산 (051-807-2812)



산소(山所)와 묘소(墓所)의 존칭어에 관한 고찰(考察)

재무·문화이사 심재서

사람도 때와 장소에 따라 격식을 갖춰야 하듯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도 '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심코 사용하는 산소와 묘소의 경칭어(敬稱語)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첫째

낱말에 그 뜻이 모호하거나 의문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전(辭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전에서 두 낱말을 살펴 보면,

1. 산소(山所)

시신(屍身)을 묻은 곳, 사람의 무덤인 피(山, 墓)를 높여 이르는 말

2. 묘소(墓所)

산소의 높인 말

■ 둘째

대화에서 쓰는 말[구어(口語)]과 문장에서 쓰는 말[문어(文語)]를 살펴보면 뜻은 같으나 사용하는데 구분이 있다.

상기에서 보듯이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수 있다.

<예시>

구어(대화에서 사용)	문어(문장에서 사용)
여기	이곳
거기	그곳
저기	저곳
옷	피복
그냥	그대로
자갈꺀다	자갈꺀다
허나	하지만
하고	와/과
나하고 가자	나와가자
책하고 연필	책과 연필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할아버지 묘소에 다녀왔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산소'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묘소'란 용례(用例)는 조선왕조 전대에 걸쳐서 사용되었다.

도암(陶庵) 이재(李穡)선생께서도 시조(始祖) 祝에서 무덤의 표시를 묘(墓)라 하였고 모든 예서(禮書)에서도 장사(葬事)한 곳을 묘(墓)라 하지 산이라 칭하지 않았다.

우리 심문(沈門)의 대동세보(大同世譜)나 비문(碑文) 또는 사적(事蹟)등에서 보듯 수백년 전 우리 선대조(先代祖)님들께서는 조상님의 무덤을 모두 묘소로만 표시하였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사전에서 산소나 묘소 모두 피(山, 墓)의 존칭어로 유의어(類義語)나 동의어(同義語)이나 대부분의 사전에서 산소보다 묘소가 보다더 존칭어(尊稱語)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문어(文語)적인 표현에서도 묘소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소보다 묘소가 존칭어이며, 문어적인 표현으로도 선대(先代)의 무덤을 표시(文語)할 때는 묘소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및 문헌기관>

- ▷(두산동아 / 새국어사전, 민중서림 / 국어대사전, 명문당 / 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국어사전, 연세언어정보연구원, 중국어사전, 일어사전, 국사편찬위원회, 성균관
- ▷同一하게 漢字 사용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산소라는 단어는 없으며, 묘소라고만 사용(중국문화원 / 일본문화원)

<묘소사용 예시>



1) 시조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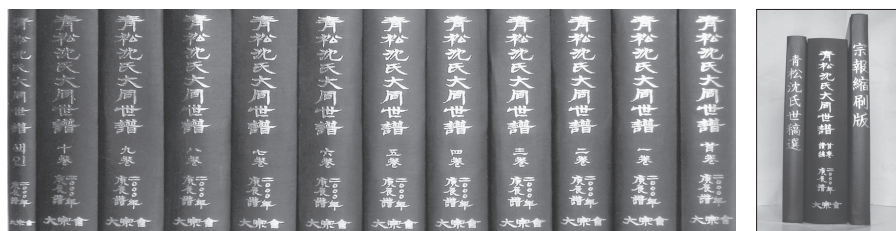


2) 시조묘소 안내표식

譜事관련 두 가지 以上의 音을 가진 漢字

字	訓 音	用 例
識	알 식	지식(知識)
	기록할 지	표지(標識)
妃	왕 비 비	비빈(妃嬪)
	배 필 배	배우(妃)
易	바 꿀 역	교역(交易)
	쉬 율 이	용이(容易)
倭	왜 국 왜	왜란(倭亂)
	두 를 위	위지(倭遲)
刺	찌 를 자	자객(刺客)
	찌 를 척	척살(刺殺)
著	지 율 저	저작권(著作權)
	붙 을 착	착상(著想)
切	끊 을 절	절단(切斷)
	모 두 체	일체(一切)
辰	별 진	진시(辰時)
	낱 을 신	생신(生辰)
車	수 레 차	차고(車庫)
	수 레 거	거마비(車馬費)
兌	바 꿀 태	태관(兌管)
	날카로울 예	예리(兌利)
	기 빠 할 열	열강(兌康)
則	법 칩	규칙(規則)
	곧 즉	연즉(然則)
便	편 할 편	편리(便利)
	오 줌 변	변소(便所)
暴	사 나 울 폭	폭도(暴徒)
	사 나 울 포	포악(暴惡)
宅	댁 닥	종가댁(宗家宅)
	집 택	유택(幽宅)
殺	죽 일 살	살생(殺生)
	감 할 쇠	상쇄(相殺)
亨	형 통 할 형	형통(亨通)
	삶 을 팽	팽인(亨人)
畫	그 립 화	도화(圖畫)
	그 을 획	획순(畫順)
活	살 활	활약(活躍)
	물 소리 괄	괄괄(活活)
寺	절 사	사찰(寺刹)
	내 관 시	시승(寺丞)

대동세보(경진보)와 수권속편 할인 보급안내



대중회에서 발간한 大同世譜(庚辰譜)와 首卷續編을 대폭할인 하여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급하고자 하오니 一家여러분께 널리 알려주시고 이 기회에 1질씩 모시기 바랍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구 분	종전가격	할인가격	신청부수
대동세보 경진보 1질 (12권)	220,000원	150,000원	()질
대동세보 수권 1권	40,000원	20,000원	()권
수권 속편 1질(6종포함)	100,000원	50,000원	()질
수권속편	수권속편 1권	50,000원	20,000원 ()권
	청송심씨세고선(선조시집) 1권	30,000원	20,000원 ()권
	중보축쇄판 1권	20,000원	10,000원 ()권
1 질	제향홀기(휴대용)	3,000원	3,000원 ()권
	중사수첩(휴대용)	3,000원	3,000원 ()권
	뱃지 1개	1,000원	1,000원 ()개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핸 드 폰
주 소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청송심씨대중회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 신임 집행부 명단



宜洛 會長



相和 常任副會長



在根 總務理事



載緒 財務·文化理事

대중회 부회장

현대경영 2011년 8월호에 표지인물로 선정



▲ 삼익 THK주식회사 대표이사 沈甲輔

관향(貫鄉) 소식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심상준 종인 취임(9. 1)

32대 심상준 교육장 취임식

2011. 9. 1. 11:30 청송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 심상준 교육장 취임식 (2011. 9. 1)

지난 9월 1일자로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심상준(沈相濬, 60세) 종인이 취임하였습니다. 악은공의 19세손인 심교육장은 청송군 부남

면 태생으로 1973년 청송 도평초등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칠곡군 학림초, 경산 진량초등학교 교감을 거쳐 2000년 청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장학사, 경산시 자인, 사동초등학교 교장, 상주교육청과 군위교육청 학무과장을 거쳐 금번에 고향인 이곳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심덕보 종인의 청송경찰서장 부임에 이어 금번에 또다시 심상준 교육장이 분향인 청송지역의 치안 및 교육 수장(首長)으로의 부임은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종인들에게 심문(沈門)의 긍지와 명예를 한껏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송지역거주 청년회원 40여명 새로 부임한 심상준 청송교육장과 상견례 가져

○ 청송심씨청송청년회(회장 심장섭)는 지난 9월 20일 저녁7시 청송읍 소재 푸른솔한우가든 식당에서 관내거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일자로 고향인 이곳 청송교육지원청 제32대 교육장으로 새로 부임한 심상준 교육장

취임을 축하하는 첫 상견례 겸 회원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 특히 이날 모임에는 지난해 부임한 심덕보 청송경찰서장도 같이 참석해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는데 우리 본향(本鄉)에 지역의 치안 총수인 경찰서장과 교육의 수장(首長)인 교육장 두분의 우리 종인(宗人)이 동시에 한 지역에서 기관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례는 청송군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종인들에게 모처럼 심문(沈門)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뿌듯한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 한편, 심상준 교육장과 심덕보 경찰서장도 인사말에서 앞으로 재임기간중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종사(宗事)발전을 위해 종인(宗人)들에게 누(累)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종인(宗人)들에게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 청송군청 심남규)



▲ 상견례 모임 (2011. 9. 20)

젊은이에게 띄우는 편지



沈成澤 1947년생(대구) 대구광역시 전 부이사관 (현)시인

그리 쉽지 않다. 기업은 자동화, 전산화로 사람의 일손을 점점 줄여가고, 매년 고학력 졸업자는 수십 만 명씩 배출되니 실업자가 쌓이고 취업의 문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다들 둘러가더라도 옳은 길을 찾고자 한다. 조금 늦더라도 좋은 길을 택하려 한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고 대학을 졸업한지 3년이고 4년이고 준비를 해도 남들이 부러워 할 만 한 곳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명언도 취업전선에서는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젊은이들이여!

가고 싶은 길이 잘 열리지 않으면 일단 눈높이를 낮추고 무슨 일이라도 도전해 보아라.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다.

도전하는 일에 성공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 하여라. 그리고 '꼭 성공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하여라.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운을 열어 준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사람위에 사람 없다.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아라.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 상대를 존중하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인생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여라.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타인과 비교 하여 자신의 못남과 단점을 원망하지 마라. 자신의 장점을 찾아 잘 키워가도록 노력하여라. 성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든가, 아니면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에 달려 있다.

일본의 세계적 부호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570개의 기업을 일으켜,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내쇼날"의 창업자다. 그가 94세의 나이로 운명 할 때 "어떻게 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 냈느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남겼다.

"하늘이 나에게 내린 세 가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첫째 가난한 집에서 태어 날기에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둘째 약하게 태어나서 젊을 때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관리하여 90을 넘길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애 중퇴를 했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했다.

불우한 환경이 오히려 성공의 원천이 되었다는 교훈이다.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우리의 속담에 곶은 나무가 먼저 잘리고 물맛 좋은 우물이 먼저 마른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방황하고 낙오자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승자가 될 수 있다.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단다.

젊은이들이여! 용기를 잃지 말아라. 무엇이든 부딪쳐 보아라. 그리고 일기를 써 보아라. 반성문을 쓰지 말고, 잘 한일, 자랑스러운 일, 앞으로의 꿈을 기록 하여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젊은이들은 취업으로 고민이 많다. 가장(家長)이 되어야 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드나들며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면 애처로운 마음이 든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물 좋고 정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제례수상(祭禮隨想)

1. 의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는 말도 많고 형식 절차도 가지 가지이다. 옛날에는 이 논란으로 조정정사가 어지러워졌고 학자와 선비 등이 접잡지 못하게 파당을 지어생사를 거른 싸움까지 하였을 정도다. 그러나 주문공(朱文公) 가례(家禮)는 우리나라 4례(禮)의 모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 하리라.

2. 제사의 유래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말기와 조선조 등을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공양왕) 2년 2월에 포은 정몽주 선생의 발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에서 비롯되며 그에 의하면 사대부(士大夫) 이상은 3대,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의 서민은 부모만 지내라고 하였다.

3. 조선조의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에서 규정한 것은 사대부 이상이 4대, 6품 이상이 3대, 7품 이하는 2대, 일반서민은 부모만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군주 전제시대(專制時代)로서 계급사회이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때는 7품 이상의 벼슬아치는 불과 2할에 불과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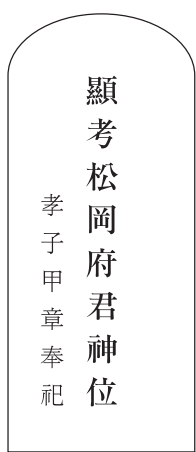
그러다가 갑오경장으로 계급사회가 붕괴되면서 너도나도 4대 봉사(奉祀)가 되었는데 근세에 가정의례준칙에서 3대 봉사로 바뀌었다.

4. 제례

예서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에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지내고 사대부는 조상에 지낸다고 하였고, 여기에는 조상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재 하계한 근본에 대한 보본(報本)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보본에 대한 보답이다.

따라서 제사는 보본의식인 셈이다. 간혹 조상의 위패(位牌)와 지방(紙榜)을 우상승배라 하여 반대도 하지만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추모하는 추도행사이며 보본의식이다.

5. 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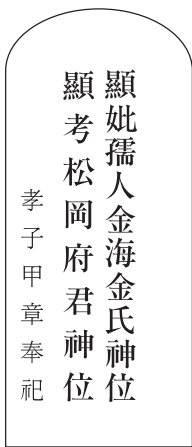


- ① 문묘(文廟) :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 ② 종묘(宗廟) : 선대왕을 모시는 사당
 - ③ 가묘(家廟) :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 ④ 위패(位牌) : 조상의 관(官), 휘(諱)를 적은 패
- 가. 신주
신주는 밤나무(栗木)로 만든다. 밤나무는 서목(西木)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위치를 말한다. 신주의 몸체는

두께 3cm, 너비 6cm, 길이 25cm 정도로 잘라 위를 둥글게 하고 아래를 모나게 하며 받침대와 덮개가 있어야 한다.

나. 지방(左考 右妣)

① 지방은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든 조상의 표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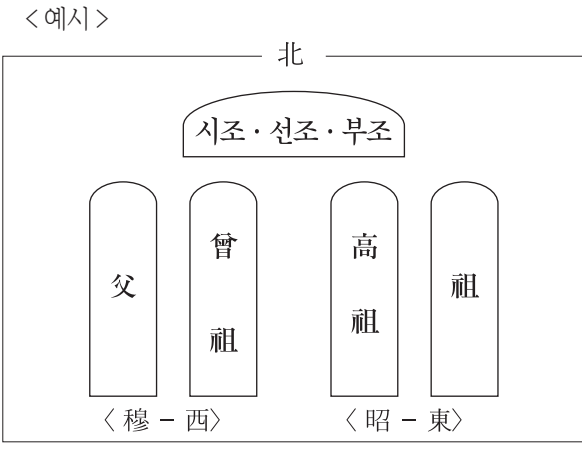


다. 백색한지(白色漢紙)에 쓴다. 크기는 신주와 같으며 내·외분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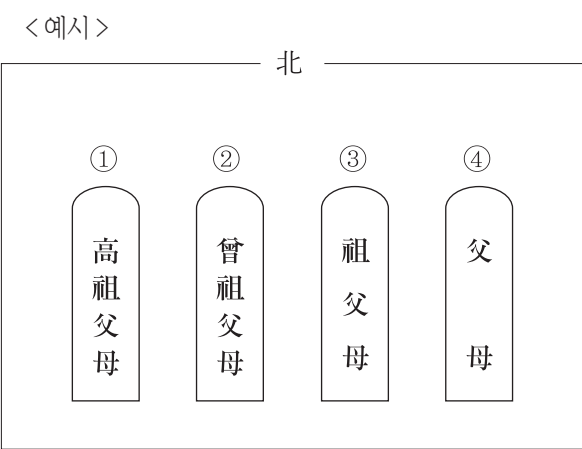
다. 영정
영정이나 사진을 제의례(祭儀禮)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는 조상의 실체와 같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방과 병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용어의 뜻

가. 소목의 서(昭穆의 서)
사당이나 감실(龕室)에 시조, 선조 또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의 현조와 고조까지 4대를 모시는 경우로서 소(昭)는 동쪽이고 목(穆)은 서쪽을 의미한다. 제일 어른을 중앙에 모시고 상석으로 해서 2위인 고조는 동에, 3위인 증조는 서에, 4위인 조는 동에, 5위인 부는 서에 모시는 것이 소목의(昭穆) 서(序)이다.



나. 이서위상(以西爲上)
이서위상은 고조까지 4대만 모시는 경우 인데 서쪽을 상으로 한다.



※ 참고 신주대신 지방을 쓸 때도 있다.

다. 사자이서위상(死者以西爲上)의 서(序)
사자(死者)는 서쪽이 상이다. 이는 동고서비(東高西卑)에서 비롯된다. 즉 방위적(方位的)으로 동쪽에서 해가 뜨니 높다하고 서쪽은 해가지니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자(生者)는 이동위상(以東爲上)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거처도 생자(生者)는 양택(陽宅)이고 사자(死者) 음택(陰宅)이다.

7. 진설

가. 옛날 우리의 제의례(祭儀禮)는 가례(家禮)였다.
나. 제례가 서책(書冊)으로는 이율곡의 '제의초(祭儀

鈔)와 김사계(金沙溪)의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이도암(李陶庵)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이 있다.

주) : 율곡 이이(1536~1584 덕수인), 사계 김장생(1548~1631 광산인), 도암 이재(1678 ~ 1746 중봉인)

- 다. 예시
- 신위(북)
 - 제1열, 匙箸 飯 盞 醋 羹
시저 반 잔 초 곱
 - 제2열, 麵 肉炙 魚炙 菜炙 鹽 조정餅
면 육적 어적 채적 염 청 병
 - 제3열, 肉湯 魚湯 菜湯
육탕 어탕 채탕
 - 제4열, 脯 熟菜 沉菜 淸醬 醯
포 숙채 침채 청장 헤(젓갈)
 - 제5열, 棗 栗 柿 梨 果 油
조 율 시 이 과 유

라. 삼실과(三實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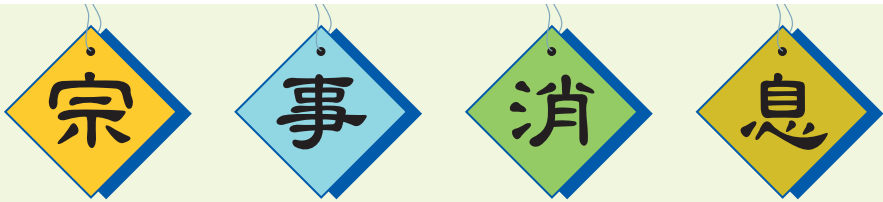
① 대추(棗)
대추의 특징은 한 나무에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리며 꽃 하나가 피면 열매 하나를 맺고 서야 떨어진다. 흰 꽃은 절대없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죽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래서 제상에 대추가 첫번째 자리에 놓인다.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에서다. 또 다른 설에는 대추는 씨가 하나로 왕(임금)을 표시한다고 하며, 7월 북중에 꽃피어 가장 빠른 과실로써 결혼은 늦어도 자식은 빨리 두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② 밤(栗)
다른 식물의 경우 나무를 길러 낸 첫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밤은 땅속의 씨 밤이 수 십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생밤인 채로 뿌리에 달려있다. 그래서 밤은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자손들이 수십 수백년을 내려가도 조상은 언제나 영적으로 자기와 연결되어 함께 있다는 뜻이다. 신주를 밤나무로 깎는 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설에는 밤은 알이 세톨로 되어 있어 3정승을 뜻 한다고도 한다. 밤 종자의 껍질은 묘목에 붙어 10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으니 즉 근본을 갖는 조상승배의 나무라 하겠다.

③ 감(柿)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이다. 그러나 감만은 그렇지 않다. 감 씨앗을 심은 데서는 절대로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욤' 나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3~5년 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잘라 고욤나무에 접을 붙혀야 그 다음 부터 자라서 감이 열린다. 이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는 생 가지를 칼로 찌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을 겪으며 선인(先人)의 예지(叡智)를 이어 받을 때 비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에는 감은 씨가 6개라 6판서(六判書)를 상징한다고도 한다.

<光州 유교대학 刊 '儒大' 林炳澈 著 '祭儀禮' 篇 일부 인용>
五世祖 遁齊公의 18代孫 沈 相 珩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諱:能奎) 비석 제막식

愛國志士 20世 諱 沈能奎 碑文

諱 愛國志士 青松沈公 能奎 先生 事蹟 碑文

公은 靑松沈氏 岳隱公派 20세 휘능 규 號菊圃字星五 1850년생-1897년졸 비 경주김씨 공은 1895년을미년에 일 제침략으로 나라가 혼란한 위기에 처 했을때 항중의 유립들과 의병을 결성 하여 소류공(沈誠之)을 의병대장에 추 대하고 공은 의병참모를 창의하여 군 사를 모집하고 영덕 흥해의 적도를 퇴 각 시켜주고 감은전투에서 3陳(정송· 이천·의성진)이 합세하여 78명의 왜 적을 격퇴한 공을 세운 捨生取義 고군 분투한 애국지사입니다.

▲ 碑文

국가보훈제2066호 대한민국 건국포 장훈장을 추서받은 공은 덕동두덕이 에서 2009년7월27일2시에 대전현충

사로 이장하여 독립유공자 4묘역 쌍분안장 비석 120번 . 대구시 망우당공원에 광복회에서 독립운동 기념탑을 창건하여 순국선열이신 공의 영령을 기리고 있다.

시조 고려문림랑위위시승(諱:洪淨) 청기군, 4世祖 악 은공(諱:元符)은 전리판서공, 5世祖(諱:天潤) 영동정공, 6世祖(諱:孝尙) 석촌공 학문이 뛰어난, 9世祖(諱:彌倫) 옥도훈도공통정대부, 11世祖(諱:淸) 사호(賜號) 벽절進 士 任辰年 倡義, 12世祖(諱:應濂) 인조충의위옥과 훈도 공, 공의 5代祖(諱:有大), 4代祖(諱:萬翼), 3代祖(諱:德潤) 비는 의성김씨다.

長은(諱:聲文) 次遇文 3男 18世(諱:熱文號守默齊 비는 의성김씨다. 長은 冕之, 비는 함안조씨의 次(諱:能煥) 3 남은(諱:能鎭) 삼형제 한학자, 長은(諱:能奎) 애국지사다. 子는(諱:宜稔) 비는 의성김씨 後는 광주노씨의 子는 현 택, 인택, 증손 상근, 고손 우섭, 공의 서령해신상두, 남 양흥재구, 야성김진흙, 의성김병태, 려흥민봉기 공의 의



▲ 비석을 손질하고 있는 계손

병활동 래역을 四代從曾孫 相燻가 청송군 항쟁사 적원 일기에서 이사실을 발견하여 국가로부터 건국포장훈장 을 받아 가문의 영예를 찾은 큰공헌을 세웠다.

공은 4世祖(諱:元符)의 17세손으로 산자수명(山紫水 明) 하고 학문과 충절과 예절과 효행을 숭상해 온 고장 에서 정송을 본관으로 世系를 이어오면서 조선조 세도 가문에서 謙讓之德을 갖추고 敬祖敦族과 崇祖德業을 기리고 미풍과 미덕을 가풍으로삼고 지혜와 학문을겸 비한 선비다. 현조, 문과 196명, 정승 13명, 부마 4명, 왕 비 3명을 탄생시킨 고관대작 대 문벌의 찬란한 선조의 위광은 역사속에서 찬연히 빛나고 명현달사를 세세 배 출한 삼한갑족 명문대가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32년에 왜인만행으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 했을 때 왜적과 싸우기 위해 의병으로 분연히 일어나 국 가와 민족의 위기를 막고 죽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 는데 신명을 바쳤다. 구국 항일 투쟁과 창의정신은 바 로 선비정신으로 국가와 겨레가 위급하였을 때 한목숨 바쳐 중국애국정신으로 일심단결하여 왜군을 섬멸하는 데 혁혁한 공을세운 공의 진중보국 숭고한정신은 천추 에 빛이되어 청사에 남아 永世에 師表가 되고 가문의 자 랑이다.

계손들은 2004년 4월 5일 한식절을 기하여 방광산 정 기밭은 골안자락 이곳을 명당지로 선정 17世祖 德潤公 系孫焚骸之壇(祭壇)에 考와비의 위패를 모시고 선현의 정신을 계승하여 가내 일체감을 가지고 계손들이 한자 리에 모여 배향을 올리고 자손만대가 사후에 한곳에 모 여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후손들이 조상과 만나 쉬어갈 수 있는 재단을 건립했다.

가솔들은 공의 애국애족 충의정신을 비석에 세겨 보 전하고 편안하게 잠드시도록 명복을 빌며 오래오래 후 손들에게 공의 송조정신과 위국충절을 기리고 훌륭한 신 열과 영광의 빛을 전하고 우리는 한 뿌리 永遠히 福 되리라.

2011년 4월 12일

악은공파 22세 從孫 字 明甫 · 離澤 謹撰

大田 顯忠祠 碑石 120번 碑文

한학자로서 후학에 전념하시다 일제의 침략과 만행 에 항거 하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시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송고한 한몸 바치었으니 이제 가슴에 맺인한과 분노를 잊으시고 자주독립된 조국의 품에서 고이 잠드소서 장대한 의거와 충절은 민족과 자손에게 길이 빛날 것입니다.

2009년 7월 27일 2시 안장

종손 22세 離澤 謹撰

공숙공 종중 안내문

■ 이장안내

의정부에 계시는 7세조 참의공 내외분과, 8세조 고성공 내외분의 묘 소가 의정부시 외관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와 한전의 변전소 이전공사 로 인하여 두 선조님의 묘역이 외관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진출입로 폐 쇄로 묘역관리, 성묘, 제향봉행 등을 할 수 없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 고, 한전변전소 담벼락 밑에 위치하게 되는 등 우리 종중 대역사의 하 나로 부각된 이장문제를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공숙공 선영으로 모 시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① 현 묘소의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 134-1번지 일원

② 이장묘소

- (1) 청송심씨 7세조참의공(諱 : 湑) 및 배위 전주이씨 묘지
- (2) 청송심씨 8세조 고성공(諱 : 順路) 내외분 묘지

③ 이장장소

과주시 월릉면 영태리 1-1. 공숙공 선영

④ 이장방법 및 일자

- (1) 공숙공 묘소 하단 11세조 생원공(諱 : 椿) 배위 밀양 박씨 묘소를 영태리 38-12번지 생원공 묘소에 3합장으로 이장. (2011년 10월 5일 공숙공 선영)
 - (2) 공숙공 묘소 하단을 정지 후 의정부 참의공 내외분과 참의공 배위 청주이씨 묘소(현 영태리 38-12번지)를 3합장으로 모심. (2011년 10월 6-7일 2일간)
 - (3) 8세조 고성공(諱 : 順路) 내외분 묘소(현 의정부 자일동)를 영태리 1-1번지 참의공 이장묘소 옆으로 모심. (2011년 10월 6-7일 2일간)
- 입원 및 종중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송심씨 6세조(滄) 공숙공파 종중 회장(대표자) 심 응 섭 백

任 員 會 費

宜洛	2011	2,000,000	회장
		(3,000,000원 완납)	
斗燮	2011	500,000	명예회장
春植	2011	200,000	감사
光燮	2011	50,000	강북구(공속공중중 총무)
재근	2011	50,000	예천
상학	2011	50,000	증평

宗 報 誠 金

공속공중회	500,000	
재흥	500,000	고문
인보	100,000	영등포
동섭	100,000	춘천
의순	100,000	대구
효식	100,000	송파
연춘	100,000	수원
재경	100,000	인천
재봉	100,000	이천
광섭	50,000	공속공중중 총무
호섭	50,000	양천
만택	50,000	용인
재춘	50,000	성남
월촌중회	50,000	진천
효섭	50,000	진천
재진	50,000	경남
일선	50,000	성북
광섭	30,000	충주
영섭	30,000	파주
재철	30,000	양주
정구	30,000	곡성
재웅	30,000	대전
형섭	30,000	전북

★ 회비 및 종보성금에 감사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 ▶ 종보90호(2011년 7월 30일) 4면
• 人順王后 沈氏를 仁順王后 沈氏로 訂正
- ▶ 종보90호(2011년 7월 30일) 8면
• 종보찬조 흥국 100,000원을 흥구(용인) 100,000원으로 訂正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の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青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青松沈氏	宗會
住 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깃대포함: 200,000원	

공 시 사 앙

1. 종보성금, 임원회비, 인터넷족보수단금 제입금시 대종회 입금통장에 입금자 성함·전화번호·입금내용 등 기록이 안되어(특히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부득이 대종회 입금으로만 처리하고 입금자 명단 기록이 안되고 있어 향후 입금 시는 꼭 입금 후에 대종회(재무담당)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2. 종보 성금 외 각종 성금 입금 시 종인분들께 대종회에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소지로 송부해 드려야 하나 현재의 대종회 인력으로(2명) 어려워 종보 게시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원님들의 기고(寄稿)를 환영합니다.
『青松沈氏 宗報』는 青松沈氏의 소식지입니다.
各 계파, 地域 宗親會 定期總會 및 行事, 先祖遺蹟, 紀行文, 詩, 수필, 합격, 승진, 체험 등 알리고 싶은 소식을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100-310
- 보내실곳: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4-10
청송심씨대종회 문화이사 심재서
- TEL: 02-2267-7857, 02-2263-7897
- 이메일: jsshim7778@naver.com

추천서 안내 양식

대종회임원(이사,유사), 효자 효부등 추천서에 작성할 추천서 양식을 공지하오니 전국 종인들께서는 추천서 파종회장이나 지역종회장을 통하여 신청하여주시고 대종회 회장

단에서는 심의한 후 이사를 선임하며, 선정된 효자. 효부등의 표창은 대종회 정기총회시 표창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천서 양식

대종회(임원·표창) 추천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성 명	자택 H/P
派 名 (5世祖基準)	諱 [] 파			
직 계	父 [] 祖父 []			
추천구분	1. 임원 2. 표창 3. 효행 4. 효부 등			
결격사유	임원(고문 / 지도위원 / 이사 등) 추천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았을 시			
추천내용 :				
추천자 :	파종회장 / 지역종회장			인

첨부 1. 관련증빙

| 송 금 안내 |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송심씨대종회 계좌
농협: 084-01-193626

인터넷 족보 수단금 송금안내

- 청송심씨대종회 계좌
농협: 301-0019-5484-91
수단(收單)은 우편, 팩스(2269-7755) 또는 이메일: cshimssi@kornet.net로 보내주시고 수단금은 상기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67-7857

5처모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 光	010-9236-2331
			琬 澤	010-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正 秀	010-8311-6429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 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 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 洪			018-505-7611
	악은공중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